

경제·정책 전문매거진

경영저널



특별기획 직장인을 위한 자기혁신 가이드

COVER STORY 장욱 군위군수

Dream Interview 대구광역시의원 배지숙

정책Focus 타당성조사 이젠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지역경제 동향분석 영천경마공원 조성, 영천 항공부품도시

Hot Issue 국우터널·범안로 사례를 통한 수요예측의 중요성

칭찬합시다 대구시청 교통국 교통관리과 주무관 김덕진



민족역사의 중심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

역사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희망찬 전원도시!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으로 역사·문화·관광의 1번지로
 새롭게 태어나는 군위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삼국유사의 산실 인각사



08

특별기획

직장인을 위한 자기혁신 가이드

14

지방자치단체 정책탐구 |

지자체 정책제안 공모전의 발전방향

16

Cover Story

장욱 군위군수 | 뜨는 군위! 뛰는 군정!

21

정책특집

군위군 관광명소

26

Dream Interview

대구광역시의원 배지숙

28

Hot Issue

국우터널 · 범안로 사례를 통한 수요예측의 중요성

33

칭찬합시다

대구시청 교통국 교통관리과 주무관 김덕진

| 현대는 스페셜리스트 전성시대

16



26



28



31



국민발전소 건설!

가을 아싸가차

로 함께해요!

아~좋다 "LED(조명)"

효율 좋은 LED로
교체하세요!



주차장 조명 1,450개 교체
8,000만원 절감(서울A아파트)

싸 (사)랑한디~
"인버터"

전동기(모터)효율 올리는
인버터 설치는 필수!

인버터 49대 설치
2억원 절감(부평B공장)



가려 쓰자 "1등급(제품)"

1등급 가전제품은
1등 주부의 지름길!



구형가전제품 1등급 교체
34만원 절감(인천C주부)



자~양자 "컴퓨터"

컴퓨터가 빨라지기 전에
플러그 꼭 뽑기!

컴퓨터 135대 플러그 차단
90만원 절감(경기D건물)



- 34 정책 Focus**
타당성조사 이전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 36 지방자치단체 정책탐구II**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의 문제점
- 39 지역경제동향분석 I**
영천경마공원 조성 2016년 개장 '박차'
- 41 지역경제동향분석 II**
영천, 항공 부품 도시로 '우뚛'
- 42 지방자치단체 정책탐구III**
농어촌버스 요금 단일화 도입
- 45 대구시 서구 정책특집**
대구 서구 '섬유산업관광' 중심에 서다!
- 46 중소기업육성프로젝트**
대구 비산염색공단의 기동 (주)진영피앤티
- 48 TK membership Card I**
군침 돌우는 '10천' 황홀한 식탁 예찬 주옥정
- 50 TK membership Card I II**
국가공인 미용장이 직접 운영하는 서보경헤어#
- 52 지방재정의 이해**
지방예산의 편성과 운영
- 53 지역소식**



경영저널

통권 제39호

명예회장	한국선
발행인 대표이사	이진구
편집인	서은주
등록번호	대구라0769
창간	2007년 11월 5일
편집위원장	백재호
편집위원	홍순대, 손지강, 이종수, 이광희 장승욱, 민경량, 이포상
편집 및 취재팀장	윤영준
편집	임선정
사진	김원현
등록일자	2011년 3월 22일
주소	(본사)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경북취재본부)안동시 용성동 1427-6번지203호
TEL	(본사) 053)766-1368 (인동취재본부) 054)83-2828
FAX	(본사) 053)766-1356 (인동취재본부) 054)83-2827
인쇄	신흥인쇄
가격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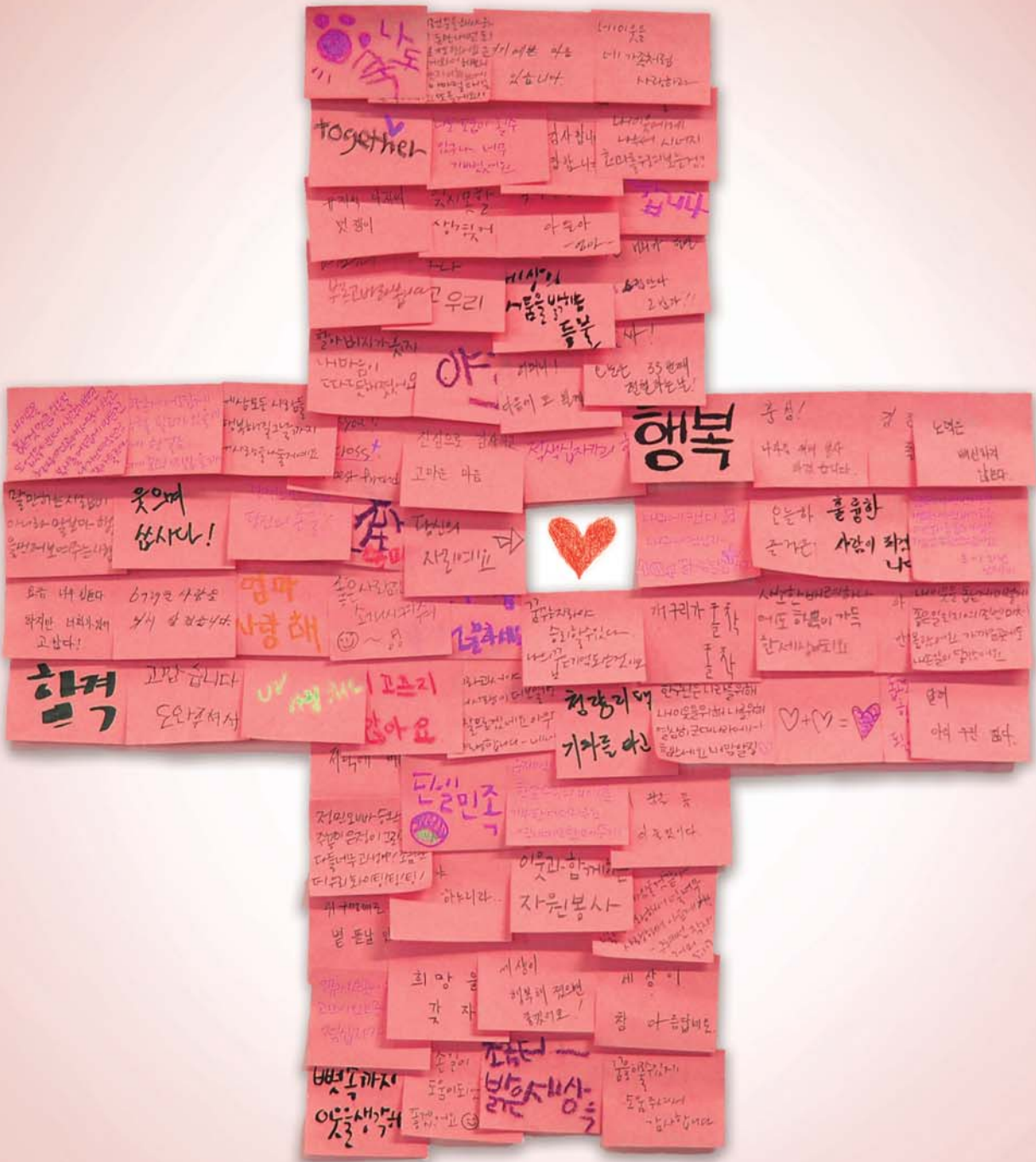
〈독자 투고 받습니다〉

경영저널은 독자 투고를 받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분야에 대한 칼럼 및 평론을 200자 원고지 5~7매 또는 A4지 1장(글자 10포인트) 분량으로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독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8길 22
706-842 경영저널 편집국
TEL. 053) 766-1368
FAX. 053) 766-1356
독자기고팀(k_journal@daum.net)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료: 연 48,000원
신청방법: 전화 053) 766-1368
이메일 k_journal@daum.net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해 주세요.
(기간일 경우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기재)
입금계좌: 대구은행 725-12-003611
국민은행 608301-04-034744 (수)경영저널



당신의 마음을 붙여주세요.

너와 나, 우리가 채워나가는 세상
 우리의 자발적인 봉사문화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 적십자와 함께하세요!

대한적십자사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청송 사과축제

2012.11.09-11.11 청송사과공원

| 주최 |  청송군 | 주관 | 청송군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 경상북도, 청송군의회, 청송경찰서, 청송교육지원청, 농협중앙회청송군지부, (사)청송사과협회

직장인을 위한 자기혁신 가이드

#1 혁신이란 무엇인가?

21세기는 혁신(innovation)의 시대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는 물론이고 사적(私的)영역마저도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기업들은 TV광고에서 혁신이란 이미지를 자신들의 기업이미지에 결합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자사의 제품이 혁신적인 제품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 역시 공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을 ‘혁신도시사업’으로 이름 붙이며 혁신을 부르짖고 있고 정치권 또한 기회만 있으면 정치혁신을 강조하고 있으니, 가히 혁신의 전성시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혁신이란 말의 성찬 속에서 혁신은 공허하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고민보다는 혁신을 해게모니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풍토가 만연한 것에 대해 혁신을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고 있기도 하다.

혁신은 기본적으로 변화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혁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세상만물은 그냥 두어도 스스로 변화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변하고 있고 나도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스스로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뿐이다. 혁신은 의지적 요소를 투입해 보다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다.

혁신(innovation)의 사전적 의미는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아주 새롭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낡은 것이며,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무엇이 혁신인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내부보다는 외부에 혁신을 요구하기 쉽다. 그러나 혁신은 1차적으로 자신에게 그리고 내부적으로 먼저 요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혁신은 외부의 변화를 추동하는 혁명이나 개혁과 다르다.

가장 원초적이고 작은 혁신의 단위는 개인의 자기혁신이다. 개인의 자기혁신이란 기존의 관성적으로 반복되던 무의미한 생활상의 습관과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은 무엇을 위해 자기혁신 할 것인가란 의문이 생긴다. 자기혁신의 최종 목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행복이다.

개인은 행복하기 위해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개인의 혁신의 목적은 오직 행복이며 어떠한 공적가치나 윤리도 개인의 혁신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행복한 부모와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개인은 스스로에 대해 혁신해야 한다.

자기혁신이란 스스로 변화하되 좀 더 높은 합리성과 도덕성을 추구 하는 것 이다. 그래야 혁신으로 인해 개인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합리성과 도덕성은 관념적인 수준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현실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

#2 열정. 행복의 에너지

행복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 이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은 5%미만의 사람들일 뿐이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지 않는다.

그럼 대다수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건가?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복의 조건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현재 자신의 직업은 자신의 행복과 뿔 수 없는 관계다.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기 위해서 즉,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다. 식상한 말이지만 진리다. 열정은 에너지며 호기심이며 의욕이다. 열정은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의 건강성에서 나온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열정이 나올 수 없으며 열정적인 사람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이다.

열정과 구분해야 할 개념이 충동이다. 열정이 생산적이고 지속적이며 계획적인 것이라면, 충동은 소모적이고 일시적이며 즉흥적이다. 자신의 열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생산의 에너지가 강화될 수도 있고 소모적인 에너지가 강화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쉽지 않다. 우리는 자신의 현재의 감정과 에너지가 열정의 상태인지 충동의 상태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3 소소한 결단의 힘

자기혁신의 시작과 끝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있다. 인생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해야 하는 결단은 대부분 거대한 담론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하는 결단의 99%는 너무나 사소해서 결단이라 말하기도 쑥스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작고 사소한 결단을 단호하게 할 줄 아는 능력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필자는 자기혁신을 위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결단 세 가지를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먼저 자기혁신을 위해서 아침 이불 속에서 결단해야한다. 10분 더 자기 위해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면 당신의 열정도 그 만큼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잠의 찌꺼기를 떨치고 스프링처럼 일어난다면 열정으로 가득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과식과 과음 앞에서 결단해야 한다. 과식과 과음은 몸과 마음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특별 기획 | 직장인을 위한 자기혁신 가이드

당신의 열정을 감소 시킨다. 산해진미를 앞에 두고 손가락을 놓는다면 당신은 이미 증대한 자기 혁신을 시작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허세 앞에서 결단해야 한다. 당신의 허세는 콤플렉스의 반영이다. 허세는 좋은 동료와 친구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인간관계를 망칠 것이다. 작은 공명심에 들뜨면 큰 친구를 잃게 된다.

#4 여대생이 술집 접대부가 된 것. 술집 접대부가 여대생이 된 것.

혁신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혁신적 과정은 결과를 바꾼다. 여기 두 가지 경우에 대한 평가가 있다. 첫 번째는 여대생이 술집 접대부가 된 경우이다. 보통의 평균적인 상식으로는 여대생이 술집 접대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술집 접대부가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다면 우리는 박수를 보낸다.

이 두 경우에 있어서 결과는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발전적 과정을 통해 결과가 나왔는가, 퇴행적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는가의 차이이다. 현재는 비슷하게 보일지 몰라도 두 아가씨의 미래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술집 접대부로 있다가 대학에 입학한 아가씨의 미래가 더 밝음은 물론이다.

결국 혁신이란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행복이란 결과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이 뜻대로 이루어질 때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5 시간, 양 날의 칼

인간에게 시간은 숙명이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혁신은 혁신이라 할 수 없다.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하루를 1년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다.

자기혁신을 위한 시간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자투리 시간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 중에서 뭘 하기가 애매한 시간에 자주 봉착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의미한 잡담, 인터넷서핑, 흡연 등으로 귀중한 자투리 시간을 죽인다. 불가피하게 자투리 시간을 만들었다면 생산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것은 자기혁신의 시작이다.

그러나 시간은 양날의 칼과 같다. 성급히 이루려는 마음은 자기 혁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모든 일을 빨리 끝마치려는 마음은 오히려 일의 진행을 방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퇴행시킨다. 일의 절차와 순서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아는 것 또한 자기혁신의 시작이다.

편법을 써서 얻은 이익이나 시간은 대부분 무의미하게 소비하고 만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이며 그렇게 무의미하게 소모하고 말 시간이라면 차분히 절차에 충실해 한 걸음씩 걸어 오르는 것이 훨씬 행복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인생의 진리다.

#6 긍정의 힘을 믿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긍정적, 낙관적 시각과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부정적, 비관적 시각과 태도이다.

두 가지 태도 사이에는 분명히 큰 이질감이 존재한다.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태도가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는 날카로운 비판의식과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따라서 예술가나 철학자들에게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는 생산적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면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성취해야 할 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면 생산력이 급속히 저하된다.

또 부정적, 비관적 태도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의 신뢰관계도 약화시킨다. 신뢰 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동료에게 너그러운 것이다. 동료에게 너그러워 지기 위해서는 긍정의 힘을 믿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가끔 조직 내의 가족, 동료들에게는 희생을 요구하고, 조직 밖의 사람들에게는 간과 쓸개까지 다 빼줄 것처럼 잘하는 사람을 목격한다.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발언권이 강한 조직은 얼마 가지 못하고 망한다. 조직 내부의 신뢰가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뢰란 그와 얼마나 오래 같이 활동했느냐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다.

#7 그렇다. 삶과 일과 그리고 유희가 한 몸뚱이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나는 머리칼이 잔뜩 썬 나이 마흔 일곱에야 겨우 짐작했던 것이다.

-이면우의 시 <손공구> 중에서-

이면우 시인의 손공구란 시의 한 구절이다. 이면우는 대전 출신으로 올해 예순을 조금 넘긴 시인이다. 그는 평생을 시인으로 살아왔지만 또한 보일러공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즉, 시인과 보일러공을 겸업했던 사람이다. 97년 '창작과비평'을 통해 등단했으니 마흔 일곱의 나이에 정식 시인이 됐다. 사람이 직업을 갖고 어른이 된다는 의미는 자신의 밥벌이를 자신이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가족의 부양도 자신이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손공구'란 시에서 이면우 시인은 마흔 일곱 살이 될 때까지 자신의 직업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보일러공이라는 육체적 일과 시인이라는 지성적 일 사이에 방황하고 고민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이 마흔 일곱이 되어서야 그때까지 자신과 처자식을 먹여 살렸던 보일러공이란 직업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직업과 화해했던 것이다.

우리도 이면우 시인과 같은 여정을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요즘은 직업이라는 자신의 삶의 도구와 겹들고 불화하는 직장인들이 너무도 많다. 이런 직장인의 삶은 고통스러우며 공허하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의 직업을 저주해보지만 결국 행복은 자신의 직업에서 시작한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된다.

이제 자신의 직업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자신의 직업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자기혁신의 출발인 셈이다.



글 | 백재호 편집위원장



안동사과

ANDONG APPLE

행·복·안·동



2011 여성 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브랜드 대상 수상

안동시청 유통특작과 (054) 840-5342

사이버안동장터 <http://andongjang.com>

경북스타벤처(Star VenTure)기업 선정

(주)그린텍



관공서, 상·하수도용 펌프
재난방지용 배수펌프 제조업체(국내 최대 실적 보유)

Company Philosophy

- 깨끗한 물관리로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기업

Management Policy

- Action Plan의 실행
- 지속적인 개선활동
- 효과적인 업무 System 정착

Motto

- 도전하는 젊은기업
- 성실하고 창조적인 기업
- 신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주)그린텍
GREEN TECH Co.,LTD.

본사공장 경북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60-34 | 의성공장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572-2
T 054 482 7505 F 054 482 7506
E-mail grt@grtec.co.kr(공용)

의성공장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원리 572-2
T 054 834 3504 F 054 832 1494

지자체 정책제안 공모전의 발전방향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모전은 중앙정부, 민간기업, 민간단체, 지방정부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공모전이 중앙정부의 각 기관(예: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실시하는 정책제안 공모전이고 다음으로는 민간의 대기업에서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공모전(예:건축디자인, 패션디자인 공모전 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조직에서 실시하는 공모전이 있다.

공모분야도 다양하여 광고/아이디어, 디자인, 브랜드, 사진/영상, 체험기, 사용후기, 학술/논문, 건축/인테리어, 게임/소프트웨어 등 20여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인크루트 공모전 사이트 참조)

지방자치제 부활 후 중앙정부와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개발의 모티브를 발굴하고자 정책제안 공모전을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경북 칠곡군에서도 '희망칠곡 정책제안 논문 공모전'이라는 이름으로 공모전이 진행되었다.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호국의 도시 칠곡'을 메인 주제로 하여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생들도 참여를 했다.

칠곡군의 경우 공모전 결과 우수상 2편, 노력상 4

편 등 총 6편의 수상작을 선정해 지난 11월 1일 칠곡군청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공모전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공모전은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뿐만 아니라 칠곡군처럼 경북고령, 경남진주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고령군의 경우 정책제안 공모전을 아이디어 제시수준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실시되어 많은 제안(제안접수 243건, 고령군청 홈페이지 참조)이 있었다.

군민뿐만 아니라 내부직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개방하여 평소 군정업무를 맡아 하면서 느꼈던 생각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점이 특이할 만하다 할 수 있다.

그럼 공모전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공모전은 크게 두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하나는 아이디어 제안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논문 형식이다. 어느 형식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으나 분명 양자간 장단점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이디어 제안 형식을 취할 경우 참여율을 높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단점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지자체의 공모전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모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제가 강력해야 할 것이다.

이 있으며 반대로 논문형식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쉬울 수 있으나 형식상 어려움으로 인해 참여율이 다소 저조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칠곡군의 경우 논문형식을 채택하여 예상보다는 적은 참여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심사위원의 구성문제이다. 통상 심사위원은 외부전문가와 내부심사자로 구성한다. 외부전문가는 창의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내부심사자의 경우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심사위원 구성 중 외부전문가를 높일 경우 대외적인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내부전문가를 높일 경우 보다 실현가능한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지자체의 공모전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모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제가 강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대학생 중심의 공모전의 경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요즘 대학생들의 경우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다면 과감히 다른 방안을 택하는 효율적 선택을 하기 때문

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반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공모전 보다는 파트타임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더욱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우엔 공모전 시기 또한 고려해야 하는 변수이다. 이를테면 시험기간과 방학기간을 피하는 것이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시기를 피할 수 없다면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하튼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을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 공모전의 형태, 심사위원의 구성, 참여동기요인의 적절성 등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는 세심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글 | 홍순대 편집위원



| 군위군수 | 장욱

최근 군위는 KBS, MBC, TBC 등 방송 3사와 영화사에서 13개의 인기 교양·오락 프로그램을 촬영하는 등 영화, 방송사로부터 최고의 촬영 메카로 꼽히고 있다.

주요 방송사와 영화사가 군위를 찾는 이유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알려진 산성 화본역과 폐교된 옛 산성중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엄마아빠 어렸을 적에' 세트장이 있고 고택과 돌담이 있는 대울마을, 맑고 깨끗한 환경, 산촌생태마을, 청정농산물 등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 여러 방송으로부터 최고의 촬영 섭외지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전원휴양 자족도시의 밑그림을 그렸다는 평을 듣는 장욱 군수를 만나 군위의 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Profile

- 1954년 경북 군위
-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겸임교수
- 군위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이사장
- 군위군 체육회 회장
- 민선5기 군위군수
- 에세이집 '장욱의 삶과 꿈'
(2006 2. 17. 도서출판 연인M&B)

뜨는 군위! 뛰는 군정!



△ 장욱 군위군수(가운데)와 인터뷰 중인 본사 백재호 편집위원장(좌)과 윤영준 취재팀장

Q 민선5기 2주년을 보낸 소감은 어떠십니까?

A 전 취임식에서 “군민과의 약속을 생명처럼 생각하며 반드시 지키겠다”고 취임 선서를 했지 지난 2년여 동안 ‘새로운 변화와 희망찬 군위’라는 군정목표를 실천하며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군민 누구나 웃을 수 있는 행복한 군위군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전원휴양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저를 믿고 묵묵히 도와주시고 함께 성원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출향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 ‘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장욱 군수가 있다’란 말이 들릴 정도로 많이 뛰어 다니시는데 현재 군위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요?

A 취임한 이후 ‘경제희망살리기’, ‘복지희망살리기’, ‘문화희망살리기’, ‘교육희망살리기’의 4

대 군정목표를 정하고 군위군의 미래지향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군위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하루에 평균 200여 km를 다니는 등 “현장에 가면 반드시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장 위주로 적극적인 군정을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정을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군위군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각종 사업들을 유치하고 각종 대단위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Q ‘경제희망살리기’란 무엇입니까?

A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군 전체 예산의 약 20%인 441억 원을 농정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사과, 자두, 대추 등 7개 작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하고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자부담분 10%를 군비에서 지원하였으며, 축협 유기질 비료 구입비 추가지원 농촌소득증대 육성사업 이차보전금 지원확대, 농업인 안전 공제로 지원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경북농민사관학교 본부를 군위에 유치하여 농업신기술 보급과 고소득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민이 웃는 군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Q '복지희망살리기'란 무엇입니까?

A 모두가 잘 살고 소외되지 않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전체 예산의 11%인 241억 원을 복지분야에 투자하여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에어컨·김치냉장고 구입·지원, 노인회관 화재보험 가입, 노인회 음면분회 운영비 지원 등 지역의 어르신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각종 시책들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여성능력개발 및 다문화 가정 정착지원등 수혜 계층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문화희망살리기'란 무엇입니까?

A 4계절 찾아와서 즐기고 쉴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위는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인각사가 위치한 곳이며 이러한 삼국유사를 브랜드화하여 지역의 미래성장잠재력을 높여가기 위해 의흥면 이지리에 1,37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삼국유사 가온누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삼국유사골든벨 대회는 올해 대상 훈격이 장관상으로 격상되어 전국 170여개 학교에서 1천여 명의 학생들이 대회에 참가하는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위읍 소재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82억 원을 투자하여 군위역사문화재현 테마공원 조성,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 조성, 산성 화본역 '그린스테이션' 조성 사업 등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중입니다.

Q '교육희망살리기'란 무엇입니까?

A '교육이 군위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교육발전



▲ 장욱 군수가 대추농기에서 주민들과 수확한 상황대추를 들어보이고 있다.



▲ 장욱 군수 집무모습

기금 195억 원을 조성해 전교생 대부분이 장학금의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학비부담 경감과 성적향상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서울 천호동 소재에 서울군위학사 건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 주요대학과 연계해 군위향토생활관을 확보하여 군위출신 학생들이 편리하게 입소해 기숙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부터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대도시 이상의 양질의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공립학원(군위인재양성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점심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Q 남은 임기의 활동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A 지난 민선5기 2년여도 중요한 시기였지만 앞으로 남은 후반기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민선5기 후반기에도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을 군정운영의 기본원칙으로 삼아 군민 중심의 행정을 펴 나갈 것입니다.

1,374억원을 투입해 조성하고 있는 군위 대표 브랜드 사업인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도시지역에 비해 주거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을 고려해 2014년 건립 예정인 국민임대주택 296세대를 조기에 건립하고 2016년 설치예정인 천연가스 주배관망사업과의 연계로 주민주거환경개선

및 무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KBS, MBC, TBC, 영화사 등 13개 대형 특집 프로그램이 이곳 군위군에서 녹화 촬영해 방송되는 등 군위군이 최고의 관심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문화 콘텐츠 개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 발굴해 주민소득과 직결되도록 할 것이며 전국에서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고향의 정취가 살아있는 고장으로 탈 바꿈 시킬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군위군 공무원들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국가예산 확보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중앙부처 및 도청을 방문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군수님의 행정철학은 어떤 것입니까?

A 저는 꾸준한 노력이 최고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빠르거나 느리지도 않게 황소처럼 묵묵있게 살아왔습니다. 주민을 가족같이 대하고 군정을 내 일같이 하며 항상 군민을 섬기는 자세로 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마음을 뒤에서 쫓아가는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군민에게 먼저 답을 주는 “앞서가는 행정”이 정답이라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더욱 잘 살 수 있다면, 군위군이 더욱 발전을 할 수 있다면 보여주기만을 위한 결과물을 위해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겁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좌절하거나 쉬지 않고 군민들과 약속한 목표를 향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묵묵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제가 군민들과 한 약속이며 제 군정운영의 목표입니다.

대담 | 백재호 편집위원장

정리 | 윤영준 취재팀장



승리의 순간까지 위더스가 함께 합니다

아파트 분쟁·관리·하자 관련 소송 전문 법무법인

법무법인 위더스는 one Stop Total Solution Service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팀플레이를 통해 고객의 이익 극대화 및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드리는 노하우, 창의적인 해결의 제시는 위더스만의 경쟁력입니다. 위더스와 손잡으십시오.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고장

군위



다목적 군위댐(옛 화북댐)

지난 2004년 착공해 7년만인 2011년에 공사를 마친 이 댐은 높이 45m, 길이 390m 규모의 다목적댐이다. 댐 용량은 총 저수량 4천870만 m^3 이며 현재 댐 하류지역에 하루 8만7천t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댐의 여수로 양쪽을 연결하는 생태이동 통로(에코 브리지)와 댐 하류 사면을 녹화한 것이 특징이며 댐 주변에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공원과 생태습지를 만들고 관광객을 위한 오토 캠핑장 등도 갖췄다.



삼국유사의 저술지 인각사

화산을 지나 고로 화수삼거리에서 고로방향으로 2km정도 들어가면 인각사가 나타난다. 인각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되었다고 전해지며 일연(一然 1206~1289)스님이 고려 충렬왕 10년(1284년)부터 입적 때까지 5년 동안 삼국유사를 비롯한 100여 권의 불교 서적을 집필한 유서 깊은 사찰이다.

그 주변 지세를 살펴보면 남쪽의 화산과 북쪽의 옥녀봉이 가파른 지맥을 드리우고 있으며, 절 앞으로는 위천이 흐르고 그 북쪽으로 학소대가 병풍처럼 드리워져 있다.

화산의 화려한 기품 있는 모습이 상상의 동물 기린을 닮은 데다, 절이 위치한 곳이 기린의 뿔에 해당하는 지점이라 하여 인각사(麟角寺)라 이름지었다고 전해진다.

사찰 경내에는 충렬왕 21년에 일연스님의 불제자인 법진에 의해 세워진 보각국사비(보물 428호)와 부도탑이 있다.



김수환 추기경 생가

군위읍 소재지에서 탐리 방향으로 2km정도 들어가면 소박한 모습을 드러내는 군위읍 용대리 238번지에 위치한 김수환(金壽煥 스테파노)추기경의 생가는 한국 최초의 추기경으로서 어릴 적 발자취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곳으로 군위군에서는 이곳에 “사랑과 나눔”의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간이역 화본역

화본역은 네티즌이 선정한 '아름다운 간이역'에 선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간이역이다. 1938년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한 이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역 건물과 급수탑이 남아 있으며 경부선 철도 개통 100주년과 현대시 도입 100주년을 맞아 세워진 박해수 시인의 시비가 있다.



석굴암 조성의 모태 삼존석굴

팔공산 한티재 정상에서 북쪽 부계방향으로 승용차로 5분정도 내려오면 좌측에 국보 제109호로 지정된 세계적인 보물 균위삼존석굴이 있다.

팔공산에서 뻗은 바위산 자연동굴 속에 삼존불상을 봉안하여 신라 소지왕 15년(493)에 만들어진 이 석굴사원은 경주 석굴암보다 조성 연대가 1세기 정도 앞서 높은 문화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내부의 석불들에서는 신라 조각예술의 뛰어난 솜씨를 엿볼 수 있다.

대율리 한밤마을

육지속의 제주도라 불리는 대율 돌담마을은 지난 2005년 문화재청과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돌담마을 중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선정한 바 있으며, 주변에는 송림과 문화유적이 산재하여 누구나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지로 손꼽히고 있다.

대율리(한밤마을)는 팔공산 북쪽 자락의 전통마을로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돌담길을 만날 수 있다. 부림 흥씨 집성촌인 200여 가구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한밤마을 돌담길은 마을 전체를 감싸면서 6.5km정도 굽이굽이 이어진다.





군위 산촌생태마을

군위 고로면 석산리 산촌생태마을 산 중턱에 모노레일이 설치돼 과거 은을 캐던 폐광에서 동굴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 구미 등 인근 대도시에서 1시간 거리에 있으며 83가구 180여명의 주민이 산과 비탈진 밭에서 버섯·대추·배추·야콘·마 등을 재배하며 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부인의 발길이 닿지 않던 오지 산골마을이었다. 이런 산골마을이 2년 전부터 명품 산촌생태체험·휴양마을로 변신했다. 별을 보며 잘 수 있는 숙박시설·찜

질방·한방삼림욕장·산약초 재배 체험장·폐광 체험장·가재잡이 체험장 등이 마을에 잇따라 조성됐다. 산 속에는 1.7km의 모노레일(소요시간 1시간)까지 갖췄다.

아미산

인각사를 지나 군위댐을 돌아보면 새로운 느낌이 와 닿는다. 군위댐에서 가까운 곳에 '97년 개장한 장곡자연휴양림과 아미산을 만날 수 있다. 군위댐을 지나 3km 정도를 가다보면 산중턱 골짜기에 아담한 통나무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장곡자연휴양림이 나온다. 참나무 천연림으로 우거진 이곳은 대도시 인근 최고의 가족단위 휴양지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아미산은 군에서 등산로 개설 및 주변정비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기암괴석이 많아 마치 촉대 같이 생긴 험악하면서도 수려한 산이다. 봄에는 꽃동산을 이루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가을에는 울긋불긋 물든 단풍으로 계절마다 나뉠대로의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법주사

신라 소지왕 15년에 심지왕사가 창건하여 소실된 후 현종(1660)년에 재건 되었다. 1977년 법당 천장에서 불교 경서가 발견되었고 발견된 기록으로 보아 절의 규모가 매우 웅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내에는 오층석탑(문화재자료 제27호)와 왕멧돌(민속자료 제112호)가 있다.

오층석탑은 원래 이층 기단위에 오층 석탑이 있었는데 상층 기단과 상층 옥신이 유실 되었으며, 하층 기단에는 현재 1층 옥신이 놓여 있고 탑의 1층에는 비문과 문장이 음각되어 있다.

왕멧돌은 직경 115cm, 두께 15.5cm의 암돌과 솥돌로 이루어진 이 멧돌은 10여명 이상이 아니면 운반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가장 큰 멧돌이다.

노란우산공제가 300만 사장님들과 내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달인 김병만, 류담 /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가입시 혜택

- ☂ 납입부금에 **연복리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 300만원 추가 **소득공제**로 최고 115만원까지 절세가 됩니다.
- ☂ 납입부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 실패 시에도 안전합니다.
- ☂ 상해 사고시 별도로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 안내

- 가입자격 모든 소기업·소상공인
- 납입부금 월 5만원부터 70만원까지
- 구비서류 청약서,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담문의 콜센터(1666-9988), 홈페이지(www.8899.or.kr)



2010. 6. 2 지방선거 이후의 활동들에 대해서

지역의 각종 현안들도 문제지만 요즘 가장 큰 문제는 청소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 학원을 91년부터 강의도 하며 운영을 해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원하며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아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들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 청소년 자살예방, 실외 흡연구역 지정 등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죠. 청소년들이 행복해야 미래가 밝은 것 아닐까요.

의정활동으로 한창 바쁘실텐데 여가시간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아들이 두 명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아줌마들과 같이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지치고 힘들 때 아무것도, 심지어 말도 하지 않아도 아이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

체가 저에겐 힐링이죠.

예전엔 여행을 무척 좋아했었는데 지역민의 대표란 자리는 24시간 대기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여행은 생각도 안 해요.

24시간 의원활동에 가장까지... 힘들지는 않으신지요?

보통 의회가 끝나고 30분 정도의 잠이 생기는데 그게 아이들의 하교시간과 맞아떨어져서 그 시간에 후딱 아이들을 잠깐 보고 다시 주민행사에 뛰어다니죠. 가끔 의회가 길어지면 못 볼 때도 있고요.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제겐 충전이나 다름없으니 한 번도 가정과 의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이런 것이 아줌마들의 힘이 아닐까요?

대구시의원 배지숙

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원은 2011년 12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교통카드 선수금을 이자수익이 없는 별단예금으로 보관하여 연간 1억1천만 원의 손실을 본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9월 대구시가 민간위탁 체육시설 성과급을 불합리하게 과다지급한 점을 지적했고 최근에는 민자 도로의 수요예측 조사가 잘못 된 점을 언급하며 재정지원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저널은 스타강사 출신에서 완벽한 대한민국 아줌마 정치인의 행보를 보여주는 배지숙 대구시의원의 바쁜 시간을 뺏어보았다.

Profile

- 달서구 제6선거구의원(새누리당)
- 제6대 영남권 통합신공항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제6대 대구광역시공사·공단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제6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현)
- 한나라당 대구시당 부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 여성협의회 회장
- 자녀교육학부모던대 공동대표

남은 기간의 미래설계를 하신다면?

전 거창한 미래설계를 말하고 싶진 않아요.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그 높은 자리에서도 못하는 일들이 많은데 제가 그 분들보다 대단한 일을 해내겠다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라 생각해요.

다만 전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듣고 그것을 전달하며 확인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아줌마, 엄마의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잘못 된 것들이 다 보이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것을 할 뿐이죠. 그리고 제가 가장 잘 아는 우리 청소년들... 특히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정리 | 윤영준 취재팀장 · 사진 | 김원현 기자



▲ 박대훈 달서구청장과 배지숙 의원이 대구 달서구의 보성선원에서 급식봉사를 하고 있다.

국우터널과 범안로의 사례를 통한 수요예측의 중요성

IMF 시대에 국가정책으로 적극 추진한 민자도로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구시 국우터널과 범안로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서울 도시철도 9호선, 우면산터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백양터널, 광주 제2순환도로 등 민자도로를 도입한 지자체들에게 초기 수요예측의 중요성을 환기시켜려 한다.(편집자 주)



▲ 국우터널 요금소 철거모습

■ 국우터널

국우터널은 대구 북구 국우동과 연경동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터널 370m, 진입도로 1,310m의 왕복 6차로)로서 민간투자 사업으로 건설, 지난 1999년 8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13년간 적정가 800원보다 낮은 소형 500원, 대형 600원의 유료도로로 운영돼 왔다.

국우터널 요금소 철거모습

당시 시내 중심가를 잇는 도로가 팔달교 밖에 없어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가 1994년 읍내동에서 서변동을 잇는 도로에 연장 370m의 국우터널을 건설하기로 하면서 이루어졌다. 당초 자본이 없던 대구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형식으로 (주)보성건설·화성산업(주)·두산건설(주) 등 3개 사업자를 끌어들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2000년에 군인공제회가 당시 395억 원에 3개 건설사가 운영 중이던 도로 운영권을 인수했다.

시행 초기에는 통행량이 1만2천여 대에 불과해 건설비와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꾸준히 증



▲ 범안로 삼덕요금소(왼쪽)와 고모요금소(오른쪽)

가하여 2012년 7월 말에는 4만7천여 대의 예상치를 웃도는 5만1천여 대가 국우터널을 이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서 칠곡 주민들 뿐만 아니라 국우터널을 통하여 칠곡을 드나드는 모든 시민들이 국우터널의 무료화 소식을 반겼다.

이수경(40·여·대구 북구 학정동)씨는 “매일 국우터널을 지나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통행료를 낼 때마다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무료화가 되고나니 앓던 이가 빠진 듯 시원한 기분이에요”이라며 반겼다.

국우터널의 무료화는 1999년 칠곡 주민들이 통행료 징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부터 시작하여 2011년에는 북구의회 국우터널 무료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서상기 국회의원의 민간투자법 일부 개정안 국회 제출, 진보신당 등 야권의 국우터널 무료화 1천명 서명운동, 한나라당 대구시당 국우터널 태스크포스팀 구성, 북구지역 야권 중심 범주민대책위원회 출범 등 모든 시민이 힘을 합하여 이루어낸 결과다.

초기에 보성건설 등 3개 사업자가 사업비를 내며 운영을 시작했지만 2000년에 군인공제회가 운영권을 인수할 당시 문제가 발생했다. 군인공제회가 운영권을 인수할 당시 평가금액 557억 원의 도로 운영권을 할인해 395억 원에 인수했지만 구체적인 거래금액을 명시하지 않은 채 대구시의 승인을 받은 것이다. 국우터널의 무료화 논란이 일자 군인공제회는 평가금액인 557억 원에 인수한 것으로 통보했다.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인수할 당시 외환위기 직후 어려운

경제상황 등에 따라 위험성을 안고 평가금액 557억 원인 도로 운영권을 할인해 395억 원에 인수했고 대구시에 승인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거래금액을 명시할 의무도 없어 공란으로 비워뒀다”고 해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인공제회의 운영권 인수 승인 당시 승인한 공무원과 군인공제회 모두 법적으로 아무런 결함이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시는 군인공제회가 제출한 인수 계약서 승인 시 명기하지 않은 평가금액 557억 원과 실투자비 395억 원의 차액인 162억 원, 그리고 그에 따른 이자를 포함한 281억 원을 상환하는 일이 남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인공제회 측과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며 빠른 시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 범안로

국우터널이 무료화 되면서 또 하나의 민자도로인 범안로에 대한 무료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안로는 2002년 5월에 완공된 폭 35~50m 길이 7.25km 규모로 수성구 범물동과 시지, 경산 지역을 잇는 유료도로다. 2002년 9월1일부터 지금까지 소형 1천100원(삼덕 500원, 고모 600원), 대형 1천500원(삼덕 700원, 고모 800원)의 통행료를 받아 오고 있다.

범안로 건설은 민간사업자와 대구시가 각각 1천 683억 원과 571억 원을 투입했고 2026년까지 민간사업자가 통행료를 징수받아 투자비를 회수하고, 적자발생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재정 지원을 해주는

최소한 영수입보장제도(MRG)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구시는 민간사업자의 수익 보증을 위해 매년 재정지원금 200~447억 원, 연 총 4천498억 원 정도를 지급해왔다. 설계 당시 하루 7만여 대의 통행량을 예상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개통 후 1만9천여 대에 그쳤으며 현 통행량은 계획 통행량의 27%, 장래에도 계획 통행량의 33% 수준에 머물 것이란 예상에 재정지원금은 늘어만 갈 뿐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대구시는 기존 사업자가 도로 운영비를 당초 협약보다 적게 지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재정지원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소송까지 고려하며 사업자를 압박한 결과 기존 사업자가 흥국생명, 대한생명, 한화손보, 흥국화재 등 4개사의 권소사업에 사업권을 매각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협약에 의하면 올해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계획 통행량의 79.8%까지 (주)대구동부순환도로에 4천498억 원을 보전해야 했지만, 대구시는 변경된 사업자와 초기 예상 통행량이 과다하게 높게 책정되는 등의 이유를 들며 끊임없이 설득하고 소송까지 고려하는 등 확고하게 밀어붙여 협약을 원래의 최소영수입보장제도 방식에서 비용보전 방식(SCS)으로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협약은 처음 협약기간인 2022년 8월 말보다 2026년 8월 말로 4년이 늘었지만 보전 예상금액은 2천488억 원으로, 기존보다 2천10억 원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자 현재 서울 도시철도 9호선, 우면산터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백양터널, 광주제2순환도로 등 민자사업을 유치한 지자체들이 대구시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 수요예측 중요성

두 민간사업에는 공통적으로 잘못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사업의 사전조사 단계에서의 교통량 수요예측조사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옷이 제대로 맞을 리 없듯 사업의 첫 단계에서의 부정확한 조사자료가 사업을 계획에 맞게 움직일 리 없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서울 도시철도 9호선, 우면산터널 등의 민자사업도 수요예측을 잘못 한 것이 지자체의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결과가 됐다.

국우터널과 범안로 외에도 수요예측 실패에 관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작년 9월 1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정전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정부와 한국전력의 전력 예측 실패로 전국적으로 322만 가구가 단전되어 국민들을 불편과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 당시 가까운 구미공단 피해액만도 54개사 5억6천만 원에 이르렀다. 2012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통합당(천안을, 47)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정전사태와 관련된 피해신청금액은 9094건 628억1958만 원이었다.

이처럼 수요예측의 문제는 세금으로 이어지고 세금은 곧 시민의 부담이 된다. 현재 대구 4차 순환도로(상인~범물)가 2013년 5월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당초에는 2012년 12월에 개통을 목표로 하였으나 내년 5월로 연기된 상태다. 4차 순환도로가 개통되면 일평균 4만6천 대 이상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이미 국우터널과 범안로를 통해 잘못된 수요예측을 경험했으니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들을 통해 충분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진행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그 조사를 검토하고 또 검토하여 초기 수요예측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 시행 후에도 예측결과가 정확한 지 지역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업체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수시로 점검하여 시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 | 윤영준 기자 · 사진 | 김원현 기자

별의도시

이제 **명천**의 **꿈**이 **맺어** 갑니다.



도전! 극기체험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신라의 달밤 아래에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2012 제11회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대회

▪ 165리(66km) ▪ 단축코스 75리(30km)

165리(66km) : 황성공원 실내체육관→생태체험공원→보문호→암곡→덕동호→추령제(간식)→장항삼거리→장항사지(Tea time)→석굴암주차장(일출관람 및 조식)→불국사경내→조양못→통일전→박물관→반월성→계림→첨성대→대릉원내→금관총(문화의 거리)→황성공원 실내체육관(안보 뒷풀이)

75리(30km) : 황성공원 실내체육관→생태체험공원→보문호→교육문화회관→엑스포 광장→분황사→안압지(Tea time)→재매정→오름→오름교 하단→남천→서천시민공원→황성공원 실내체육관(안보 뒷풀이)

참가자에게는 참가기념품, 간식, 조식이 제공되며 중도포기자를 위하여 **회송차량**이 운행됩니다.
(완보자에게 완보메달과 완보증을 수여합니다.) ☆ 코스별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

주최 :  사단법인 **경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후원 :  경상북도  경주시 · 경주시의회

11월 3일(토) 18:00 ~
11월 4일(일) 13:00

참가자격 : 신체건강한 15세이상 남, 여
(어린이, 장애인은 보호자 동반시 가능)

신청마감 : 2012년 10월 20일까지

참가비(예약접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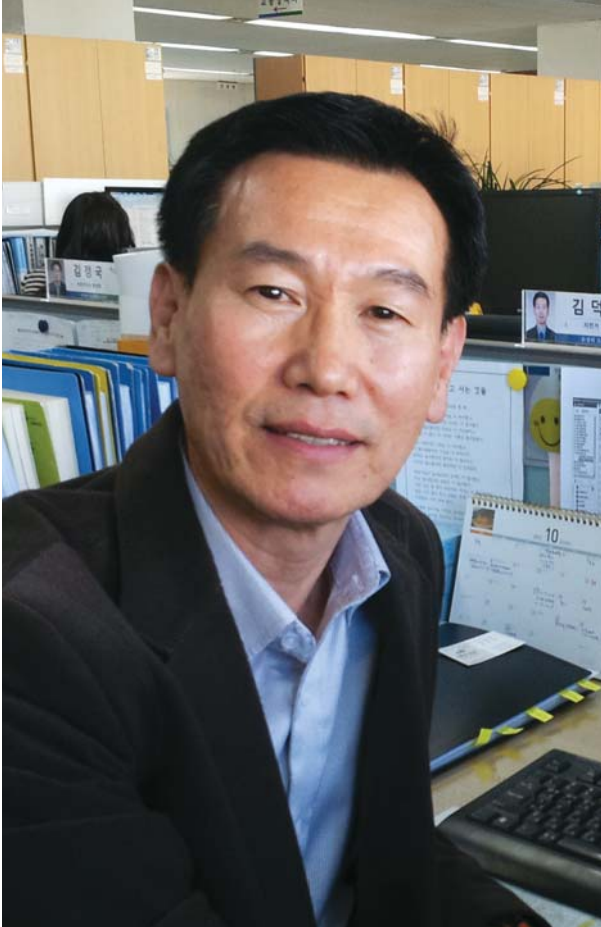
165리(66km) 일반 : 12,000원 / 청소년(1992년 이후 출생자) 및 20인이상 단체 : 10,000원

단축 75리(30km) 일반 : 10,000원 / 청소년(1992년 이후 출생자) 및 20인이상 단체 : 8,000원

문의 : (054) **744-5566** 경주새마을금고
010-9939-5332 사무국장

설계VE 스페셜리스트

대구시청 교통국
교통관리과 주무관 **김덕진**



21세기는 전문가가 인정받는 시대이며,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전문가로 발돋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김 주무관은 1977년 경북도에서 공직을 시작, 대구시로 전입한 이후 지하철 1호선을 건설하면서 지식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껴 주경야독으로 국가기술 최고의 자격증인 토목시공과 건설안전 등 2개 분야에서 기술사에 올라 지식을 업무에 접목시킴으로 건설기술수준 향상을 주도, 성과를 고양했다. 최근에는 건설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미 주요 선진국에서 그 효과가 입증된 설계VE(Value Engineering)에 관심을 갖고 국제공인설계VE전문가(CVS)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지자체의 건설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김 주무관은 자신이 속한 대구시의 발전에 대한 노력과 열정이 특별한 사람이다.

2009년 도시철도건설본부 근무당시 지하철 3호선의 설계VE를 처음으로 접하고는 “21세기 ‘경쟁과 개방’의 글로벌스탠더드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은 바로 설계VE이다”라는 판단아래 설계VE이론과 실무를 공부하면서 2009년 제2회 전국발주청 설계VE 경진대

회에 처녀 출전하여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이 여세를 몰아 대구시 가용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사업비의 절감과 공사품질향상을 위한 설계VE 도입구체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2010년에는 대구시 의회 전환위에 브리핑하여 설계VE 조례개정이 관철되었으며, 2011년 시정연구 논문을 발표하여 조직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본청 물관리과 하수시설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마다 우기에 어김없이 반복되는 생활오폐수의 하천유출사고를 방지하기위한 아이디어로 “우수토실용 가동식 자동웨어장치”를 발명·제안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금년 8월에는 특허권을 취득하고 제품사업화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점점 다양하고 분화된 전문가를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자기분야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노력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몇은 자기 일에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 ‘급변하는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고민을 조금이라도 하는 이가 있다면 김 주무관처럼 자신의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글 | 손지강 편집위원

타당성조사

이젠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란 해당사업의 가능성, 타당성, 투자효과에 대한 조사로 일반적으로 해당사업이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재무적 측면에서 실시가능한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란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정책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는 일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공부문 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 우선순위,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적합하게 투자되도록 투자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사전심사제도가 전문적 분석기법 등의 부족이나 정치적 요인 등 여러 변수들로 인해 과다투자를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7조(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심사)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융자사

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타당성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는 사항인 것이다.

그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당성조사를 어느시점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법시행령 제41조 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는 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이의 반영여부와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유를 적시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조사는 투자심사요구 이전에 실시해야 하는데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계획수립 단계를 전후로 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럼 공공부문 타당성조사는 어느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2항 단서에 '지방행정 및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편성지침'에서는 신규 투자사업과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예산을 반영하되, 총사업비

구분	행정연구원	이공계연구원	경상계연구원
자격	박사 이상	석사 이상	석사 이상
업무분야	행정학 전공	이공계 전공 (토목, 건축, 도시공학)	경상계 전공 (통계, 경제 경영 등)
인원수	1명	1명 이상	박사 1명 석사 3명 이상
경력제한		업무분야 산업기사 자격이 있고, 원가계산 또는 공사직산업무 경력 3년 이상	원가계산 업무 경력 3년 이상
주요업무	관리운영방안	실업예정지 적정성 및 토목 건축분야 등 원가분석	사례조사 및 투자 및 재원조달 분석

500억 원 이상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있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토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도 타당성 조사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체사업비 중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등 각종 부대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용 또는 공공용건축물의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자격요건(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141호)’을 각 지자체에 전달한 상황이다. 상기 고시내용을 보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자격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문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연구기관 포함), 민법32조·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대학교의 연구소로서 대학교 총장이 승인한 연구소를 말한다.

다음으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자격요건으로는 전문기관의 정관(학칙)의 목적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

분야에 관한 연구업무와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업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하고 타당성 조사 수행인력은 박사 2명, 석사급 5명 이상을 포함한 총 인원 15명 이상으로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재산이 3억 원 이상(학교 연구소의 경우 제외할 수 있다)이어야 하며, 이 경우 실질 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민자유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방재정법 등에서 사업시행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필수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타당성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용역회사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확인절차는 요식행위가 아닌 재정의 건전한 집행과 행정의 대외신뢰도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글 | 홍순대 편집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의 문제점

현재 대구 경북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직영에 의한 방식보다는 민간에 위탁을 주는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민간위탁이 직영에 의한 방식보다 재정부담 완화, 공공서비스 수준 개선 등의 공적인 부분의 장점과 민간부분의 전문적인 기술, 경험, 지식, 시설 장비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생활폐기물의 위탁처리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그 이유는 위탁업체(고용주)와 환경미화원(고용인)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어 가고 있고, 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와 미화원 사이의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인건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위탁업체의 경우

민간위탁 대행비용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위탁업체가 주장하는 ‘적정하지 않은 민간위탁 대행비용’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일까?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위탁비용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산출하고 있다. 원가계산 용역기관은 상기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 「환경부고시 제2011-147호」에 규정을 준용하여 원가를 산출하고 있다. 또한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 제1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지역의 한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는 모습.

<환경부 고시 제2011-147호 내용>

구 분		산 정 방 식
노무비	직접노무비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자료 또는 보통인부 노임 (건설협회 발표) 적용
	간접노무비	직접계산 방법 또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용하고 있는 기준 및 각 지역여건 고려 산출 (사례-공사원가 계산 간접노무비율 적용)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직접 소용비용 산출
	감가상각비	정액법을 적용하되 내용년수 경과한 차량의 경우 제외 검사비와 수리비를 포함하며 발생될 것을 예견하여 산출(대수선비 제외)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
	보 험 로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적용
	복리후생비	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피복비, 건강진담비, 급식비, 교통비, 여비 등
	유 류 비	정부표준품셈상 기계경비부문 운반장비 시간당 유류소모량 또는 전년도 1년간 유류소모량 적용
	세금 및 공과금 기타 법정경비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기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
일 반 관 리 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5% 적용	
이 윤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 적용	

이처럼 원가계산 기관은 규정과 지침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데 왜 대항비용이 적정하게 계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상기 규정에 나와 있는 원가비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위 원가계산 비목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노무비와 차량운행에 따른 제비용(유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이다.

하지만 환경부 고시 기준에는 여러 가지 모호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직접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실제 수거원들과 운전원들에 대한 차등 기준이 없으며, 간접노무비 계산방식 또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용하고 있는 기준 및 각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라고만 되어 있다.

경비 부분에서도 대부분 직전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자료는 대부분이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대항업체의 자료를 준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만약 차기년도에 위탁대행을 기존업체가 아닌 타업체와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원가계산의 적합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비의 경우 현재 위탁중인 업체의 차량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현 업체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타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각 업체가 보유한 차량의 연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가계산서상의 감가상각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결국 기존 업체에 손 들어주기 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업체선정과정의 특혜시비가 붙어지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최근 들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청소업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산정, 즉, 원가계산단계부터 명확한 지침과 근거에 의거해서 산정되어야 한다.

명확한 근거에 의해 산정된 원가계산은 지방행정 예산에 큰 도움이 되고 업체는 적정한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모호한 기준에 의거한 원가계산 결과는 소모성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지자체와 업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를 관리감독 하는 상급기관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대항업체의 위탁비용을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일선행정에서의 혼선을 차단하고 지자체, 대항업체, 대항업체 종사자, 원가계산 기관, 지역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인이 Win-Win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글 | 손지강 편집위원

귀하만을 위한 "Smile Designer" 월치과병원



행복한 미소는 행복한 마음에서 옵니다.
 쾌적한 진료공간과 원칙을 지키는 진료서비스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책임지는 귀하만의
 "Smile Designer"가 되겠습니다.

- 월치과병원 원장 신수용 조창식 -
 (前 미르치과병원 원장)

진료안내

- 임플란트
- 구강외과
- 치주치료
- 치아미백
- 보철치료
- 근관치료
- 치아교정
- 예방치료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30~오후 6:00
 토 요 일 : 오전 9:30~오후 5:00
 점심시간 : 오후 12:30~오후 2:00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찾아오시는길



지하철 2호선 - 수성구청역 3번 출구(도보 1분 거리)

BUS 100, 309, 323-1, 420, 420-1, 425, 509, 609, 649, 724, 840, 939, 990, 991, 가창1, 수성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06-2번지 축산농협빌딩 5F 월치과병원 Tel.053)741-1100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1222-중-1734호



▲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일대의 영천경마공원 조성부지

영천경마공원 조성, 2016년 개장 박차

총 사업비 3,657억원 투입, 2016년 12월 개장 목표

2020년 기준 지방세 1,800억원 예상, 신규 일자리 1,150개 창출

한국마사회의 4번째 경마공원인 영천경마공원이 오는 2016년말 문을 열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에 설치 허가가 승인된 영천경마공원이 2016년 12월 개장을 목표로 10월 25일 최용 농수산국장 주재로 경마공원조성을 위해 도 관련 4개 부서 실과장과 영천시 3개 부서 담당과장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박차를 가했다.

영천경마공원은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일원 148만㎡(약 44만8천 평) 규모로 총사업비 3천657억 원을 투입해 경마장 및 부대시설, 시민공원 등이 조성되고 서울경마공원(35만 평), 부경경마공원(38만 평) 등 기존 3개 경마공원과 비교해 국내 최대 규모이며, 국내 유일의 국제규격 잔디주로를 설치하게 된다.

또한, 국내 최초로 전자카드를 도입하고 도박 중독 치유·재활센터를 설치해 도민의 경마중독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연친화적으로 설계된 시민공원 및 문화레저타운 등을 건립해 사행성 이미지를 탈피한 국민레저휴양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매입은 경북도와 영천시가 각각 300억 원씩 총 6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경마시설 등 건설공사는 한국마사회가 3천57억 원을 부담한다.

지난 17일 경북도와 영천시는 편입부지 보상을 위해 영천시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 2014년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환경, 교통, 재해 등 제영향성 평가 검토 후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 절차를 마치고로 했다. 한국마사회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건설공사 및 경마시행 준비단계를 거쳐 2016년 12월 개장할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북도와 영천시는 기존 조직을, 한국마사회는 신규조직을 각각 설치, 공동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 추진하게 된다.

영천에 경마공원이 들어서면 2020년 기준으로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연 1천800억 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돼 재정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직접고용 640명, 간접고용 510명 등 신규 일자리 1천150여개도 창출된다.

김영석 영천시장과 이인선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열정과 혼을 담아 영천경마공원을 지역 랜드마크로 부각시키고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휴양 공간으로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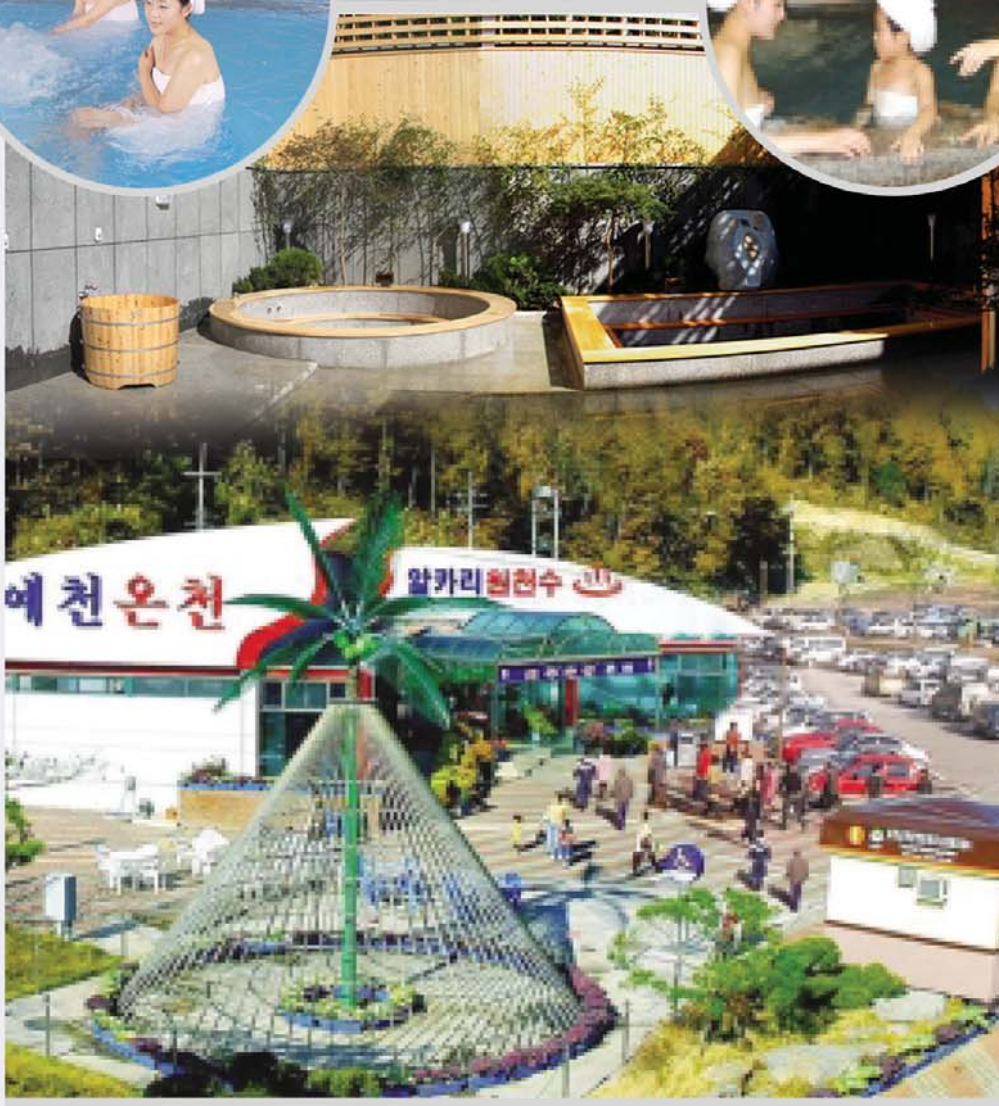
글 | 윤영준 취재팀장



영업시간
오전 06:00 ~ 오후 8:00

예천온천

바쁜 하루 일과를 접어두고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 함께
100% 원천수 신비의 예천 온천수에
온몸을 맡겨 피로와 스트레스를
확 풀어 버리십시오.



예천군

영천, 항공 부품 도시로 '우뚛'

영천에 항공전자MRO센터 설립, F-15K 항공전자부품 MRO



▲ 경북도와 미국 보잉사는 영천에 항공부품정비센터 건립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정희수 국회의원, 김영석 영천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보잉 조셉 송 부사장, 최병록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경북도 제공)

경북 영천에 미국 보잉사의 항공부품 정비센터가 들어선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보잉사 조셉 송 아태 지역 사업개발 부사장, 김영석 영천시장, 최병록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은 지난 9월 초 경북도청에서 정비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보잉사는 영천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F-15K 부품 공급을 위한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수리, 정비, 개조)센터를 건립할 방침이다.

보잉의 경북 진출배경에는 주요 군수기지와 가까운 이점과 함께 지역의 우수인력과 구미~영천~포항~경주를 잇는 IT·소재·부품 벨트가 잘 구축돼 있어 항공부품산업의 최적의 입지로 주목을 받아왔다.

영천 본촌농공단지와 도남농공단지에는 (주)화신과 (주)신영, (주)금창 같은 탄탄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있고 세계적인 자동차부품 회사들의 투자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의 (주)다이셀과 프랑스 포레시아가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금호읍)에 내년 가동을 목표로 부품 공장을 짓고 있다.

영천은 이번 보잉사와의 MOU 체결로 항공사업과 자동차사업의 연계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보잉사와 경북도는 구체적인 투자규모, 시기, 사업범위를 정하

지 않았으나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과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잉사를 중심으로 항공전자산업 기반이 영천에 구축되면 군용기 핵심부품의 공급 및 정비 기지로서 기능은 물론, 국내 최대 항공클러스터인 경남 사천을 연계한 항공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국내 기업, 연구소 등과의 협력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 도지사는 “세계적 기업인 보잉사와의 파트너십을 계기로 경북의 항공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힘을 얻게 됐다”며 “자동차 부품과 항공전자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고급 일자리 창출과 기술 경쟁력 확보 등 지역 산업에 새로운 활로를 열겠다”고 밝혔다.

보잉 아태지역 조셉송 부사장은 “보잉은 대한민국과 반세기가 넘는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사회기반시설, 관련 산업 및 업계 종사자들의 탁월한 지식수준과 역량을 잘 알고 있다. 이번 투자로 한국의 우수한 자원을 잘 활용하여 양국의 항공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 | 윤영준 취재팀장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도입해야 되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복지정책 중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도입이 대세다. 대세론인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이긴 하나 모든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민을 위한 복지정책인줄 알면서도 쉽게 도입하지 못할까? 필자는 그 이유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는 무엇인가?

구간요금제도는 이용자가 이동한 구간만큼 지불하는 요금제도로 이동한 구간만큼만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가장 적정하고 현실적인 요금제도이기는 하나 원거리를 이용해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교통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반면 요금단일화는 이용자가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지역내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요금제도로 구간요금제와는 상반된 요금제도다.

시가지에서 먼 농촌 구석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A씨는 시가지에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기에 교통비에 대한 부담으로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 구간요금제는 복지혜택을 많이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높은 교통비로 인해 부담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최근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가 사회적 대세론을 이루고 있다.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지역민들에게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주고 대중교통이용을 보다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으로서 안성맞춤이기에 너도나도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를 외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우선 전국의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2월 충남 당진군에서 전국 최초로 구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시행하였다.

경북에서는 2009년 1월 군위군이 최초로 시행했고, 2011년 6월 군위군에 이어 울진군이 두 번째로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면, 충남은 당진(2007), 홍성(2009), 금산·예산·홍성(2012) 등 5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충북은 옥천(2011), 보은·영동(2012) 등 3개 군지역에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경북 2곳을 포함하여 전국 10개 지역이며 2013년에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5개 지역이 더 있다.

2012년 기준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는 경북 및 충남, 충북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가 대세인 만큼 전국으로 확산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어느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느냐, 늦게 시행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인다.

모든 지자체에서 요금단일화를 쉽게 도입하여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요금단일화로 인해 나타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하자니 예산이 필요하고 안 하자니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고... 자치단체장들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눈치를 보면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요금단일화 제도는 지역민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언제가는 시행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 판단된다.

왜 지자체에서 요금단일화 도입을 망설이는지 장·단점부터 알아보자.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다. 대중교통은 누구나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런 대중교통에 대해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맹점에서 볼 때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요금단일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중교통 활성화 및 자가용 이용 억제일 것이다.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활성화(농어촌버스 이용률 증가) 될 것이며, 대중교통활성화는 곧 자가용 이용 감소로 나타날 것이다. 대중교통이용자가 많으면 당연히 자가용 이용자가 감소하는 반비례 관계에 있고, 자가용 이용자의 감소는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세 번째,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요금단일화는 이용자에게 교통요금 부담을 감소시켜 전통시장 등 상권이 형성된 시가지 왕래 횟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으면 전통시장 및 상권이 활성화 될 것이고 상권활성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네 번째, 운전기사의 서비스 질 향상이다. 운전기사가 이용요금 계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운행에만 집중할 수 있어 안전운행 및 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노인·학생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비 부담 감소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의 어두운 면도 없지 않다.

첫 번째, 요금단일화를 시행하게 되면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요금단일화 시행으로 인해 운송업체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가중된다.

두 번째, 운송업체 및 농어촌버스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운송업체에

게는 재정자립도 하락을 부추겨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터미널사업자, 택시업 종사자들에게는 수익 감소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좋은 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선부르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요금단일화를 도입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예산 확보일 것이다. 구간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변경하게 되면 운송수익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운송수익 하락에 대한 보전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각 지역마다 지역 특성 및 운송원가 등에 따라 오차가 있겠지만 농어촌버스 한 대당 연간 보전금액은 적게는 1천5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 정도의 운송수익 차액이 발생한다. 각 지역의 농어촌버스 운행대수 × 운송수익 차액 만큼의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요금단일화가 각 지역의 특성과 지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맞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일요금제를 도입하기 전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운송수익 차액과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타당성 연구를 시행하여 운송수익 보전금액에 대한 파악과 지역민들의 의증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정책은 한 번 결정되어 시행되면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시범운영을 통해 연구 결과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완하고, 시범운영 자체에 대한 재검토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 이종수 편집위원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는
신비의 왕국 대가야!

고령 ~ 참좋다!

일찍이 찬란한 대가야 문화를 꽃피웠던 자랑스런 고장으로
수많은 유물과 유적이 있는 대가야박물관, 왕릉전시관,
우륵박물관,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등이 있습니다.
예술성과 실용성이 뛰어난 토기문화와 갑옷, 투구, 고리칼 등의
철기문화, 가야금을 창제한 악성 우륵 선생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곳입니다.

고령으로 오십시오~~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왕릉전시관

대가야박물관





흘러가는(stream) 섬유관광

대구 서구 ‘섬유산업관광’ 중심에 서다!

대구 서구청(구청장 강성호)은 섬유관광 상품인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Stream)산업관광(이하 섬유산업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 사업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산업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관광시설(첨단의류체험관, 전시판매장, 체험장 등) 인프라 구축, 전문해설사 양성교육 등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1월 1일 첫 선을 보였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주)진영P&T, 퀸스로드 3개 기관이 참

여하며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본관 1층에 마련된 ‘첨단섬유 체험관’에서 15개 의류·산업용 소재 섬유의 전시·시연을, 별관 ‘신제품개발센터’에서 섬유원료를 녹여 원사를 제조하여 제직하는 공정을 견학하고, (주)진영P&T는 ‘날염제조공장’에서 미염색된 원단에 염색, 날염 등을 하는 생산공정을 순서에 따라 견

학을 하고 ‘전시홍보관’에서 염색 및 날염공정을 거쳐 완성된 제품인 이불, 방석, 쿠션, 손수건 등을 전시·판매한다.

마지막 코스인 퀸스로드의 ‘대구관광상품 전시판매장’에서는 의류와 화장품, 지역공예품, 선글라스 등을 전시·판매하며 체험장에서는 천연염색 체험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구청은 이번 섬유산업관광 사업을 평소 일반인이 접하기 힘든 원료에서 실을 뽑는 과정에서부터 제직, 염색, 날염공정의 전 과정을 견

학하고 천연염색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등 교육과 재미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문의 : 홈페이지(<http://www.dgs.go.kr>)

문화공보과(☎053-663-2161)

글 | 윤영준 취재팀장



‘테마가 있는 섬유스트림산업관광’ 본격 시행
전문해설사 양성, 섬유체험관,
염색과정 관람 전과정 준비완료



▲ (주)진영피앤티 권중근 대표가 대구의 섬유산업 발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대구 산업혁명이라 부를 수 있는 섬유산업이 기나긴 침체를 끝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그 가운데에 있는 (주)진영피앤티의 권중근 대표를 만나보았다. 켈트는 누비라고도 하며 천과 천을 바느질하여 무

늬를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외국에서는 켈트 문화가 발달하여 켈트 자체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하여 마치 벽에 그림을 걸어 놓듯 액자에 넣어 감상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켈트 전시회 등 켈트를 이용한 다양한 문화가 있다. 날염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옷이나 이불에 염료를 사용하여 색을 입힌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지난 1984년 진영레이스라는 상호로 시작하여 1994년과 1999년에는 각각 (주)진영, (주)진영니트를 설립했다. 2006년에는 대구 비산동의 (주)갑을방직을 인수하고 (주)진영피앤티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는 왜관공단과 대구 서구 비산염색공단에 각각 (주)진영과 (주)진영피앤티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왜관에 위치한 제직사업부는 (주)진영 외 2개 회사에서 레이스와 니트 같은 여성용 의류소재와 스포츠웨어, T-셔츠 등의 남성용 의류소재 등 독창적인 연구개발과 첨단 자동화 설비로 다품종소량생산 시스템

대구 비산 염색공단의 기둥 (주)진영피앤티



을 갖추어 생산하고 대구의 (주)진영피앤티에서는 켈트와 날염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다. 평균 근속연수 20년이 넘는 전문기술 인력으로 운영되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켈트제품의 약 9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미국 중·상류층의 홈 퍼니싱에 사용되고 있다.

켈트를 만드는 데에는 하루에서부터 1년이 넘게 걸리는 것도 있을 정도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그 제작기간이 다양하고 날염도 고객이 원하는 무늬를 도안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권대표는 다른 수출기업들도 그러하겠지만 ‘품질’과 ‘납품’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고품질은 기본이고 거기에 납품까지 완벽해야 고객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고품질의 제품이라도 납기일을 넘기면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에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고객의 입장에서 납기일을 생각하라. 내가 물건을 받고 싶은 날 받아야 하는 것이지 판매자가 편한 날짜에 받는 것은 아니다’고 교육합니다”라며 고품질을 위해 연간 총 매출액 201억 원(2012년 9월 기준)의 70% 이상을 설비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품질은 직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사람경영도 중요하다 생각하며 직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공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는 낙후된 섬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구청,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퀸스로드 등 섬유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산업과 관광을 결합한 ‘테마가 있는 섬유 스트림 산업관광’ 사업을 제안하여 지난 2월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산업관광활성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섬유 및 디자인의 개발,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고루 둘러볼 수 있는 콘텐츠로써 몇 달 간 시범운영한 결과 테마여행 참여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좀 더 다양한 볼거리를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인다면 비산염색공단의 예전 황금기를 넘어서는 제2의 황금기를 맞을 것으로 생각된다.

‘테마가 있는 섬유 스트림 산업관광’은 첫 번째 코

스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관광객들이 의류·산업용 소재 및 섬유를 관람하고 섬유 원료를 녹여 원사를 제조·제직하는 공정을 둘러볼 수 있고 두 번째 코스인 (주)진영피앤티에서는 켈트와 날염 전문업체로 미염색된 원단에 염색, 날염 등을 하는 생산 공정을 견학할 수 있는 코스로 조성됐다.

마지막 코스인 퀸스로드에는 대구지역의 대표적 의류 아울렛 매장으로 천연염색 등을 체험하고 의류와 화장품 등 패션 상품을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코스로 꾸며졌다.

이 중 두 번째 코스인 (주)진영피앤티에서의 공정은 먼저 4층에서 디자이너들이 무늬 및 도안을 디자인 작업을 하는 환경을 보고 2층에 준비된 전시실에서 완성된 켈트와 날염 제품들을 구경하게 되며 1층의 공장에서는 미염색된 원단 생산에서부터 각 공정을 거쳐 건조되어 포장되는 것까지, 수출하기 전 창고에 입고되는 전체의 작업들을 보는 과정을 준비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마저 옷을 만드는 원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줄 몰랐었다며 신기해하는 분들이 무척 많았다고 하며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많은 홍보와 관심 부탁했다.

이 테마관광의 주 공략층은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과 중국인 관광객으로 볼거리와 체험행사를 통해 비산염색공단을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지역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좀 더 글로벌하게 확장하여 지역 전통산업인 섬유산업을 부흥시키려는 목표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권대표는 지역의 섬유산업 부흥기를 맞이하는데 있어서 품질, 납기, 영업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우선 품질이 나쁘면 고객들이 외면할 것이기에 고품질을 생산해야하고,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면 신뢰가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전처럼 정에 이끌려 주문을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고품질과 정확한 납기일을 기본으로 지극정성을 다한다면 회사가 발전할 것이고, 하나하나의 회사가 발전한다면 지역의 섬유산업도 부흥기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 했다.

글 | 윤영준 취재팀장 · 사진 | 김원현 기자

군침 돋우는 10찬 황홀한 식탁 예찬

주옥정

주옥정 주인장의 손맛 입소문, 밥 한공기 ‘푹딱’



▲ 노은숙 대표(가운데)와 현주(왼쪽), 현옥 자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옆 골목 위치한 영양돌솥밥전문점 ‘주옥정’에는 식도락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전11시~오후10시까지 영업하고 있는 이 식당은 식사 시간대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특히 점심시간에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붐비는 것은 다그만한 이유가 있다. 집에서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밥상의 맛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맛’을 선

사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식당일을 해 온 노은숙(57) 대표는 ‘내 가게에서 만큼은 집 밥처럼 배부르게 먹이자’는 생각으로 처음 문을 열었으며 첫째 현주, 둘째 현옥, 셋째 현정씨의 이름을 따 ‘주옥정’이라 이름을 지었다. 틈틈이 가게일을 돕던 세 자매는 어머니의 힘들어하는 모습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며 어머니를 돕게됐지만 아쉽게도 막내는 지방으로 시집을 가서 현재는 장녀와 차녀가 어머니와 함께하고 있다.

노 대표는 “우리집 자식 같은 손님인데 함부로 만들 수 있나요.

정성을 다해 만들어야죠”라며 개업부터 친환경만을 고집하여 얼마 전부터는 아예 가창에서 배추, 무, 산나물 등 자주 사용하는 채소를 무공해로 재배하고 있다.

신선한 친환경 재료와 함께 자식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를 걱정하는 자식들의 마음이 어우러져 더욱 따뜻하고 든든한 밥상을 맛볼 수 있다.

현재 대표 메뉴인 ‘돌솥밥정식’은 돌솥에서 금방 지은 밥과 손수 연구해서 만들어 낸 각종 장아찌 등



▲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등갈비찜 돌솥밥 정식'

10찬으로 구성된다. 1인분 8천 원인 돌솥밥정식은 주문시 찹쌀과 쌀을 섞고 거기에 검은콩, 대추, 은행, 고구마를 함께 넣어 돌솥에서 조리한다. 생선구이, 콩자반, 김치, 물김치, 각종 나물반찬과 노 대표가 국내산 콩을 이용해 직접 띄운 메주로 만든 된장찌개를 손님들에게 제공한다. 어느 식당의 공장표 주문 반찬과 된장이 아닌, 오리지널 맛이 주옥정의 가장 큰 장점이다.

노 대표의 경상도 어머니와 같은 그 고집스러움 때문에 맛 또한 일품이다.

입 안 가득 퍼지는 그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구수하고 감칠맛이 난다.

5천 원을 추가 지불하면 돌솥밥정식에 노 대표 특제소스와 각종재료가 잘 어우러져 조리된 돼지등갈비찜을 먹을 수 있다.

등갈비찜은 삶을 때 기름을 최대한 걷어냈다는 설명에 살짝 텁텁한 고기라고 생각했으나 매콤한 특제소스와 함께 당근, 감자, 고추, 양파, 땅콩가루 등이 곁들여져 전혀 텁텁하지 않으면서 소스와 재료들이

잘 어우러져 대구의 명물이라 하는 찜갈비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래서인지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것이 등갈비찜 돌솥밥 정식이라 한다.

둘째딸 현옥씨는 차근차근 어머니의 비법을 전수 받고 있으며 나중에 어머니께서 식당을 그만두시면 어머니의 비법으로 자신만의 돼지등갈비찜 전문점을 열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고 했다.

방금 지은 돌솥밥에 직접 띄운 메주로 끓인 된장!
자식을 사랑하는 경상도 어머니의 밥상이
그리운 사람에겐 딱 좋을 듯하다.

다른 메뉴로는 두루치기 8천 원, 오징어볶음 7천 원, 김치찌개 6천5백 원, 된장찌개 6천

원, 돌솥비빔밥 5천 원 등이 있다. 별미로 흑태찜 3만3천 원 ~ 4만3천 원, 등갈비찜 3만3천 원 ~ 4만3천 원이다. 식사시간대 돌솥밥정식 주문시에는 예약이 필수며, 쌀쌀해지는 날씨에 어머니의 밥상이 그리우면 주옥정에서 한 끼를 배불리 먹어보자.

- 주소 : 대구 수성구 범어동 587-10
- 전화 : 053-756-9292

글 · 사진 | 김원현 기자

국가공인 미용장이 직접 운영하는
서보경 헤어#



▲ 서보경 원장이 직접 드라이를 하고 있다.

여느 헤어숍과 별반 다르진 않았다. 하지만 속속들이 살펴보니 깔끔하게 정리된,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아름다운 사장님 만큼이나 멋지게 정리정돈이 돼있다. 수성구 상동에 위치한 미용장이 운영하는 ‘서보경 헤어#’을 찾아갔다.

‘서보경 헤어#’의 간판 이름대로 원장님은 서보경(32)씨. 유아교육과를 전공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일을 하고 있었으나 전문직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차에 평소 관심이 있었던 미용일을 접하곤 바로 빠져들게 됐다.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 처음엔 힘든 점도 많았지만 꼭 하고 싶었기에 힘든 것도 이겨내고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는 미용장이 되어 개인 헤어숍을 운영하고 있다.

2001년부터 미용일을 시작해 2010년에 최연소 미용장이 됐으며 현재 미용업 11년차인 서원장은 미용일이 고된 노동임에는 틀림없다고 한다. 식사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소화기계통이 약해졌고 팔을 많이 쓰고 항상 서있어야 하는 일의 특성상 퇴근 시간이면 어깨와 다리가 많이 아프다고 한다. 그렇기에 고된 노동과 함께 현재는 헤어숍 경영능력도 필요하다며 예전보다 많아진 남성 디자이너 분들에 대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했다.



또한 고객들과 관점이 달라서 클레임이 걸릴 때는 힘들지만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이 즐겁다며 고객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 요즘은 신문도 꼬박꼬박 읽고 책도 자주 읽는다고 한다.

미래의 꿈에 대해 묻자 많이 배우고 익혀서 지역의 유명한 '오무선 미용실' 처럼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며 자신의 매장에서 헤어디자이너들과 헤어쇼도 하고 싶다고 한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여 강단에 서서 후배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싶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서원장은 "학벌이 아닌 자신의 재능으로 인정받는 전문직이고 연령제한이 없다는 것이 헤어디자이너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배울 것들이 산더미 같이 많아요. 하지만 전 힘들이지 않고 쉽게 얻은 것은 빨리 없어지며 자신이 노력한 것은 어떻게든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배우고 노력할 것입니다"고 했다. 잠깐 동안의 인터뷰였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며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은 참으로 눈부셨다.

- 주소 : 대구 수성구 상동 295-16
- 전화 : 053-761-4847

글 | 김원현 기자



*미용장이란?

미용사 자격증 취득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혹은 동일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미용인으로 한국산업 인력공단이 시행하는 미용장 국가기술 자격시험으로 이론과 실기에 최종 합격하여 한국 미용장 자격을 취득한 미용인들을 말합니다.

미용업계에서 미용장 자격의 취득은 미용계 최고 영예의 자리며 사회적 대우는 박사, 기술사와 함께 기능예의 박사학위와 동등한 위치입니다.

미용장은 학점은 행제에 따라 39학점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직업능력 개발훈련교사 2급 자격을 동시에 취득하여 미용관련학과 대학교수나 미용직업관련 학교, 학원의 우선추천을 받고 있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최고 미용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91년부터 2011년까지 필기는 5천178명이 응시하여 합격률은 59.6%지만 실기는 5천299명이 응시하여 12.8%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집계된 2011년의 경우 실기에 474명이 지원하여 54명이 합격하여 11.4%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통계)

Profile

- 국가공인 미용기능장(현)
- 대구가톨릭대학원 뷰티디자인 석사 과정(현)
- 2011년 BETA컵 전국 미용 경기 대회 심사위원 위촉
- 2010년 미용사자격증 시험 감독 위촉
- 2010년 대구시장배 미용경기대회 트랜트컷부문 금상

지방예산의 편성과 운영

지방자치단체 수준 기금 척도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 과연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이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할 만큼 성장했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호부터는 지방재정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방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본고를 위해 참고한 서적 및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책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론(가정4판), 손희준 · 강인재 · 장노순 · 최근열 공저, 다영문화사, 2011
- 지방재정론, 이목훈 저, 대왕사, 2011
- 한국의 지방재정(제3판), 권형신 · 이상용 · 이재성 공저, 도서출판 해님, 2006



지방재정이란 국가재정에 대비하여 사용하는 개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 및 과정이다. 즉,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내 지역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과 복지증진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재원의 조달과 관리 및 지출 등 일련의 공경제적 활동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활동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의 징수는 물론 이전재원의 확보와 관련된 수입활동, 지출을 위한 주민선호의 파악과 지출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방 서비스의 생산·공급과 관련한 활동,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과정의 관리활동, 그리고 재산관리·자금관리·회계관리 등 기타 활동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내의 사무나 공동문제를 자기 책임과 부담하에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의 하나가 지방재정이므로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건실한 지방재정기반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가적 시책의 지방적 구현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리고 지방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의 구체적 표현으로, 그 내용과 절차는 바로 자치단체의 수준과 국가 발전에의 기여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다음 호에서는 지방재정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글 | 장승욱 편집위원



안동, 문화명품테마거리 조성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품격높은 도시, 풍요로운 시민, 행복한 안동을 위해 중앙문화의거리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7개월 여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10월 19일 준공기념식과 함께 주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중앙문화의 거리는 전선지중화 및 하수관거사업 등 지하매설물 사업 완료 후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안동이 가진 전통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 전체적 디자인 테마인 '한마당길'로 전통가옥이 가지고 있는 마당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했으며

병산서원의 정적인 마루베이스를 바닥패턴에 적용, 하회탈춤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실개천의 패턴으로 사용했다.

신한은행 앞 광장에는 시원한 물줄기와 조명이 어우러진 분수 및 안동선비의 곳곳한 지조와 푸른 기상의 상징인 소나무를 식재하여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의 이미지를 극대화했으며, 지역 내 재능있는 예술인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소공연장을 설치하여 안동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중앙교차점에는 전통건축 양식의 갓 모양을 모티브로한 비가림 시설을 적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편안하게 머물면서 즐기고 쇼핑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대구보건대학 '스마트 캠퍼스' 홍보

지난 17일 IBM 촬영팀은 한국 촬영팀 6명·IBM 한국 협력회사 FA솔루션 임원 3명과 함께 15~16일 양일 간 대구보건대학과 대구시 등을 촬영했다.

촬영팀은 15일에는 동성로, 서문시장, 경상감영공원 등을 방문해 역동적이고 다양한 대구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 16일에는 대구보건대학을 방문해 대학 전경과 남성희 총장, 이재도 학술정보원장 인터뷰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재학생 등을 촬영했다. IBM이 대구보건대학을 촬영한 이유는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대구보건대학이 한국대학으로는 처음으로 IBM 솔루션을 이용한 앱을 적용했고, IBM이 이를 알고 대학 측에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예천 '다문화가정 합동 전통 혼례식' 개최

경북 예천군은 17일 한천체육공원에서 기관단체장 및 가족 친지, 하객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다문화가정 합동 전통 혼례식을 개최했다.

이번 다문화가정 합동 전통혼례식은 군이 주최하고 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했으며 한국사진작가협회 예천지부, 대한미용사회 예천군지회, 흑흥풍물패 등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이날 색동옷을 입고 청사 초롱을 밝힌 초롱동이를 앞세워 가마를 탄 신랑 신부 행렬을 시작으로 풍물패의 길잡이, 신부집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의식 친영례, 혼례 약속을 천신께 고하고 신랑이 신부집에 기러기를 전달하는 의식 전안례, 백년가약을 서약하는 의식 교배례, 한 표주박을 둘로 나눠 술을 따라 마시는 의식 합근례, 덕담과 양가의 인연을 축하하는 집례 교혼 등으로 진행됐다.



경주시, 사랑의 집짓기 제43호 준공식

경북 경주시(시장 최양식)와 경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신경준)는 지난 18일 건천읍 방내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에게 지역주민과 건천읍 자생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집짓기 제43호 가정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 날 입주한 가정은 지난 1935년 건축된 오래된 목조 흙 벽담 가옥으로서 벽체에 금이 가고 누수와 붕괴위험이 있어 생활하기에 불편해 신축이 불가피한 상태였다.

경주시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으로 시비 3천만 원을 지원하여 내부 구조가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설계해 패널조립식 건물 49㎡로 신축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지난 2004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42가구 9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3가구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다. 경주시 이상락 복지정책과장은 “사랑의 집짓는 사람인 수급자에겐 일자리를, 수혜자인 수급자에게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자활사업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타 지자체, 기관·단체에도 전파돼 무료설계, 측량수수료면제, 자원봉사참여 등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제3차 한-아프리카 포럼

아프리카 지역의 외무·통상 장관을 포함한 고위급인사 15개국 50여명이 18일 새마을운동을 배우기위해 구미 사곡동의 경상북도 새마을역사관을 방문했다.

방문단 일행은 새마을운동의 태동 배경과 진행과정이 담긴 전시물과 외국 보급 사례,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등 다양한 역사자료를 둘러보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방문행사는 지난 2009년 이후 두 번째로서 아프리카연합(AU) 및 각국의 지도층에게 새마을운동의 홍보를 위해 외교통상부에서 실시했다.



경북도 '도지사 및 시장·군수 정책 간담회' 개최

경북도는 15일 경주 신라미래니엄파크에서 민선5기 후반기 도 및 시·군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지사 및 시장·군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23개 시·군 시장·군수는 최근 태풍 피해복구와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등 지역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한번 경북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결의하며 2013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동

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 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등에 대한 협의도 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피해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긴급대책비 20억 원이 지원되어 국가차원에서 분야별 피해조사와 지원기준 및 항구적 복구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전하며 “시·군에서도 도와 정부의 대처상황을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고 검증되지 않은 괴담 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지역안정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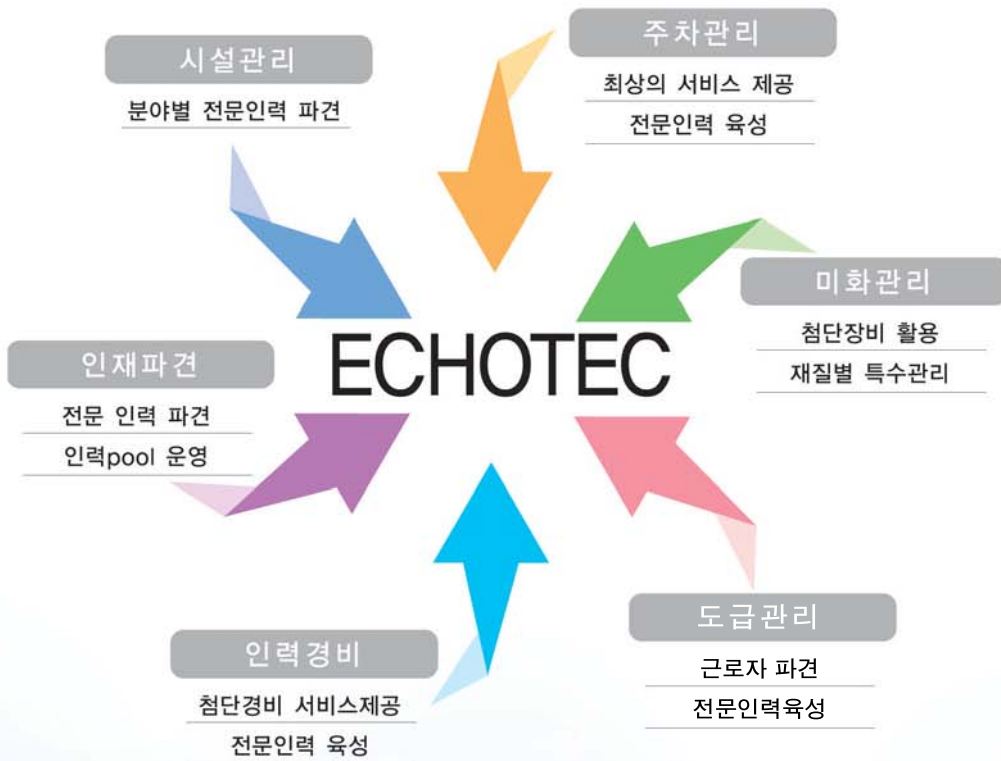
정리 | 윤영준 취재팀장

아웃소싱 업계의 대표기업
믿을 수 있는 업체

(주)에코텍

다년간의 Outsourcing Service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Group

주기적인 관리와 피드백으로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건물 본연의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230-12번지 그랜드M타워 13층 1301호
Tel 053)522-9224, 568-4001 Fax 053)522-9225

구미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원평동 59-9번지 2층
Tel 054)455-4001 Fax 054)458-4007

Korea Economic Planning Institute

한|기|연

기획재정부 허가 학술연구기관
공기업·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국가·지방계약법에 의한 원가계산·검토기관
국토해양부 개발비용산정·검토기관
농어촌공사 지역개발 컨설팅 등록

“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이 개원 12주년을 맞이하여
한|기|연 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www. **KEPI** .or.kr



지식경제와 공적기지 실현을 위한 최고정책연구기관

한|기|연